

# 홍대용의 『간정필담(乾淨筆譚)』 이본고(異本考)

채송화\*

- I. 문제 제기
- II. 『간정필담』의 이본 현황
- III. 『연휘(燕彙)』 중 『간정필담』의 특징
- IV. 『담헌서(湛軒書)』 중 『간정동필담(乾淨洞筆談)』의 특징
- V. 결론

## <국문초록>

본고는 현전하는 홍대용 필담 이본들을 망라하여 그 현황을 소개하고, 이를 크게 세 계열로 나누었다. (1) 『회우록』계 이본, (2) 『연휘』 중 『간정필담』, (3) 『담헌서』 중 『간정동필담』이 그것이다. 그 중 계열(2)에 속하는 『간정필담』과 계열(3)인 『간정동필담』의 차이에 초점을 맞추어 그 특징을 분석하였다.

총 8종의 이본이 현존하는 『간정필담』은 『연행잡기』와 한 세트를 이루어 유통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간정필담』은 조선 내의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저술된 단독 필담집이다. 필담 서두에서 필요한 사전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으며, 항주 선비들과 주고받은 서간문들을 대폭 추가하여 짧은 기간 동안 우정이 깊어지는 과정을 설득력 있게 그려내고 있다. 또한, 명나라 유민의식이 표출되는 대목들을 통해 홍대용이 그 유포 범위를 조선으로 한정된 저작임을 밝혔다.

『간정동필담』은 『간정필담』보다 분량이 더 많으며, 홍대용이 필담 당시

---

\* 서울대학교 국문과 박사수료.

나누었던 이야기들을 최대한 수록하고자 노력한 필담 소재의 보고(寶庫)라고 할 수 있다. 조선과 청나라의 다양한 문물과 제도들이 필담 전편에 걸쳐 소개되었고, 다양한 신분과 국적을 가진 등장인물들이 등장하고 있으며 그 진솔한 면모가 잘 묘사되어 있다. 또한, 홍대용은 청나라의 치세를 긍정하며 조선과의 실제 외교 관계 또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와 같이 흥미로운 소재가 무궁무진한 『간정동필담』은 필담 초기본인 『간정동회우록(乾淨洞會友錄)』이나 『간정록(乾淨錄)』에 더욱 근접한 이본이라고 할 수 있다.

핵심어: 홍대용(洪大容), 『간정필담(乾淨筆譚)』, 『간정동필담(乾淨洞筆談)』, 연행(燕行), 『연휘(燕彙)』, 『담헌서(湛軒書)』

## 1. 문제 제기

담헌(湛軒) 홍대용(洪大容, 1731~1783)은 1765~1766년에 중국 사행을 다녀왔다. 그는 병술년(丙戌年, 1766) 2월에 북경에서 반정균(潘庭筠), 엄성(嚴誠), 육비(陸飛)를 만나 깊은 우정을 나누었다. 항주 선비들과의 만남은 비록 한 달 남짓 동안 7번이 전부였지만, 홍대용이 중국에서 경험한 가장 특별한 사건이었음이 틀림없었다. 귀국 후 홍대용은 바로 그다음 달에 세 선비와 주고받은 필담과 왕복 서한을 모아 『간정동회우록(乾淨洞會友錄)』을 엮었다. 이 필담 기록은 당대 조선 문인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청나라 한인(漢人) 거자(擧子)들과의 만남은 그 자체로 논쟁거리가 되기도 했지만, 박지원(朴趾源), 이덕무(李德懋), 박제가(朴齊家) 등 이른바 진보적 지식인들이 연행사절단에 참여하게 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기도 했다.

홍대용 연구는 근래 동아시아학 열풍에 힘입어 비교적 호황을 누리고 있으며, 그 중에도 필담 기록은 최근 가장 주목받는 홍대용의 저작이라 할 수 있다. 상당량의 연구 성과가 축적되고 있는데, 텍스트 연구는 기초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다.

정훈식은 활자본 『간정동필담』과 필사본 『간정필담』은 큰 차이가 있으며, 『간정필담』 이본 간의 차이점은 거의 없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밝혔다.

부분적인 비교를 통해 『간정동필담』은 『간정필담』을 보완한 결과물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 구체적인 양상은 ① 단어의 수정 ② 내용 보완 및 수정 ③ 새로운 글 추가 ④ 간략화와 생략으로 분석했다.<sup>1)</sup>

후마 스스무[夫馬 進]는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소장본인 『간정동회우록』(『간정록(乾淨錄)』)을 소개하고 이본들과의 비교를 시도하였다. 그 결과, 『간정동필담』과 『간정필담』이 『간정동회우록』을 저본(底本)으로 하여 각각 다른 개작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를 근거로 『간정필담』은 홍대용이 공개를 목적으로 편찬한 정본(定本)이며, 『간정동필담』은 홍대용의 의도와 전혀 다르게 근대에 출현한 다소 엉성한 편찬물이라는 결론을 내렸다.<sup>2)</sup> 이 가설을 받아들여 서학(西學) 관련 내용의 개작 양상을 밝힌 연구도 제출되었다.<sup>3)</sup> 또한, 필담 이본들을 『천애지기서(天涯知己書)』, 『철교화(鐵橋話)』와 비교하기도 하였다.<sup>4)</sup> 광지안싱[卍健行]은 『간정필담』을 쓴 후부터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홍대용이 직접 『간정동필담』을 위한 개작 작업을 했을 것이라 추정했다.<sup>5)</sup>

홍대용이 연행 기간 동안 작성한 연행록 초고가 존재했을 것이라는 가설과 함께 홍대용 연행 텍스트 전체의 형성 과정을 도식화하여 추정한 연구도 있다. 이 연구에서는 홍대용의 한글 연행록인 『을병연행록』이 『간정동필담』보다 먼저 필사된 초기본들과 유사점이 많다는 것을 밝혀, 『을병연행록』이 홍대용 필담 이본 연구에 반드시 참고해야 할 텍스트임을 밝혔다.<sup>6)</sup>

이와 같이 선행연구들은 새로운 이본을 소개하고, 기존 이본들과 부분적인 비교를 통해 그 관계나 선후 관계를 밝히고자 노력했다. 하지만 최초본

1) 정훈식, 『홍대용 연행록의 글쓰기와 중국 인식』, 세종출판사, 2008, 62~84면.

2) 夫馬 進, 『홍대용의 『乾淨衛會友錄』과 그 改變』, 『漢文學報』 제26집, 우리한문학회, 2012, 193~263면.

3) 조창록은 『홍대용 연행록 중 西學 관련 내용의 改削 양상』(『대동문화연구』 제84집,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3) 185~188면에서 『간정동필담』, 『간정필담』, 『을병연행록』의 1766년 2월 17일 일기 중 서학 개작 양상을 분석하였다.

4) 최식, 『텍스트로 바라본 燕行과 燕行錄 : 燕行的 體驗과 享有』, 『대동문화연구』 제88집,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4, 448~458면; 최식, 『韓中 知識人 交流와 記錄 : 洪大容과 嚴誠을 중심으로』, 『泮橋語文研究』 제40집, 반교어문학회, 2015, 319~321면.

5) 卍健行, 『朝鮮洪大容《乾淨衛筆談》爲杜撰本說戲疑』, 『北京化工大學學報(社會科學版)』, 北京化工大學, 2016(1), 60~67면.

6) 채송화, 『『을병연행록』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2013, 21~34면.

인 『간정동회우록』, 조선 시대에 유통된 『간정필담』, 근대에 활자로 간행된 『간정동필담』이 각각의 연구에서 혼재되어 사용되어서 지금까지도 텍스트의 정확한 명칭조차 통일되지 않았으며 이본 현황 파악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고에서는 현전하는 이본들을 망라하여 그 현황을 소개하고, 그 중 『간정필담』과 『간정동필담』의 내용 차이에 초점을 맞추어 그 특징을 분석할 것이다. 이를 통해 홍대용 필담 이본들의 계열을 밝히고, 각각의 고유한 특징을 파악하고자 한다.

## II. 『간정필담』의 이본 현황

홍대용의 필담 기록은 전술하였듯이 다양한 이본들이 존재한다. 이를 계열화하여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sup>8)</sup>

| 계열  | 작품명    | 저술 시기 | 소재                | 비고                 |
|-----|--------|-------|-------------------|--------------------|
| (1) | 간정동회우록 | 1766년 | 실전(失傳)            | 최초본                |
|     | 간정록    | 미상    | 승실대 한국기독교박물관      | 『간정동회우록』의 교정본      |
|     | 철교화    | 미상    | 홍대용 후손가 소장        | 『간정동회우록』의 전초본(傳抄本) |
|     | 천애지기서  | 미상    | 『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 수록 | 『간정동회우록』의 전초본      |
| (2) | 간정필담   | 1772년 | 총 8종(아래 표로 제시)    | 『간정록』의 수정본         |
| (3) | 간정동필담  | 미상    | 『담헌서』 수록          | 『간정록』의 수정본         |

『간정동회우록』은 홍대용이 귀국 후 한 달 남짓 동안 만나서 나눈 필담과 주고받은 편지를 엮어 세 권의 책으로 만든 최초의 필담 기록이다.<sup>9)</sup> 실

7) 본고에서는 『간정필담』을 홍대용 필담 이본의 총칭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그 근거는 ① 여러 이본 중에서 온전한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② 홍대용이 직접 지칭한 용어이고, ③ 가장 많이 유통되어 당시의 독자들은 그 이름으로 해당 텍스트를 기억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8) 전체 이본에 대한 표와 계열(1)의 특징은 채송화, 앞의 논문, 22~24면을 요약한 후 수정·보완하였다.

물이 남아 있지 않은데, 주변 문인들의 글에 『회우록(會友錄)』 혹은 『회우기(會友記)』로 명명되어 있다.<sup>10)</sup> 『간정록』은 현존하는 가장 이른 시기의 이본으로 확인된다. 권2만 남아 있는데, 권수제(卷數題)의 삭제 표시로 보아 『간정동회우록』의 교정본임이 확실하다. 묵색, 청색, 적색의 다양한 침삭 기호들이 빼곡하게 표시되어 있다. 나머지 이본들과 비교해 보면 현존하는 이본들 가운데 『간정동회우록』과 가장 흡사한 형태의 이본임을 알 수 있다.<sup>11)</sup>

『철교화』와 『천애지기사』는 『간정동회우록』의 전초본이다. 『철교화』는 홍대용이 엄성의 필담만을 선별하여 몇 가지 조목으로 엮은 후에 이것을 이덕무가 교감한 책이다.<sup>12)</sup> 『천애지기사』는 이덕무가 『간정동회우록』 중 2월 15일까지의 필담(권1에 해당)을 뽑고 이에 대한 본인의 평어(評語)를 가한 저서이다. 두 저서 모두 완전한 형태의 이본은 아니지만, 실전된 『간정동회우록』의 원형에 가까우므로 이본 연구에서 중요한 방증 자료라 할 수 있다.

『간정필담』은 홍대용이 직접 수정한 이본이다. 두 권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원중거(元重擧)가 쓴 발문을 통해 1772년에 완성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여러 이본 가운데 『간정필담』만 같은 제목의 이본이 8종 파악된다. 이본들의 편제는 다음과 같다.

- 
- 9) 홍대용, 『담헌서』 外集 卷1, 『杭傳尺牘』, 『與潘秋廡庭筠書』, “弟以四月十一日渡鴨水, 以五月初二日歸鄉廬. 以其十五日, 諸公簡牘, 俱粧完共四帖, 題之曰, 『古杭文獻』. 以六月十五日而筆談及遭逢始末, 往復書札, 并錄成共三本, 題之曰, 『乾淨會友錄』.”
- 10) 홍대용 본인도 반정균에게 보낸 편지에서 두 차례 『회우록』이라고 했다. 『회우록』 혹은 『회우기』라고 지칭한 것은 다음과 같다. 박지원, 『燕巖集』 卷1, 『煙湘閣選本』, 『會友錄序』; 박지원, 『燕巖集』 卷15, 『熱河日記』, 『銅蘭涉筆』, “乾隆丙戌春, 與嚴誠潘庭筠來燕京, 洪德保證交乾淨衛衙, 有『會友錄』, 余曾有序.”; 이덕무, 『靑莊館全書』 卷63, 『天涯知己書』, 『筆談』, “但一讀『會友錄』, 則閣淚汪汪.”; “今撮『會友錄』秘本, 并載不佞評語.”; 박제가, 『貞菴園文集』 卷4, 『與徐觀軒(常修)』, “『會友記』送去耳. 僕常時非不甚慕中原也, 及見此書, 復忽忽如狂, 飯而忘匙, 盥而忘洗.”
- 11) 장경남, 『승실대 한국기독교박물관 소장 홍대용 연행 기록 연구』, 승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제14회 매산기념강좌 : 담헌 홍대용에 관한 새로운 탐색 발표문(2017.10.13.), 9~15면. 홍대용의 필담 기록을 『乾淨錄』이라고 지칭한 기록은 다음과 같다. 홍대용, 『담헌서』 외 집 권3, 『간정동필담(續)』, 『乾淨錄後語』; 박지원, 『燕巖集』 卷3, 『孔雀館文稿』, 『答洪德保書(第三)』, “奇遊一段, 已於『乾淨錄』中, 耳目目搗, 實如足踏.”
- 12) 안대희, 『洪大容 후손가 소장 李德懋 筆寫本 3종 연구』, 『고전문학연구』 제42집, 한국고전문화회, 2012, 379~390면.

|   | 편명   | 내제             | 표제             | 목록 | 소장정보 : 청구기호                            |
|---|------|----------------|----------------|----|--|
| 1 | 간정필담 | 담헌연기<br>(湛軒燕記) | 담헌연기           | ×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br>:奎 7126 v.5-6       |
| 2 | 간정필담 | 담헌설총<br>(湛軒說叢) | 담헌설총           | ○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br>:奎 4908 v.1-2       |
| 3 | 간정필담 | 없음             | 담헌필담<br>(湛軒筆譚) | ×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br>(한국은행 기탁본) : 한은 215 |
| 4 | 간정필담 | 없음             | 담헌필담           | ×  | 일본 오사카부립 나카노시마 도서관<br>:韓4-11           |
| 5 | 간정필담 | 담헌연휘<br>(湛軒燕彙) | 담헌연휘           | ×  | 국민대학교 도서관<br>:고816.5 흥01 v.1-2         |
| 6 | 간정필담 | 담헌설총           | 연휘             | ○  | 연세대학교 도서관<br>:고서(목용실) 915.2 홍대용 연 -2   |
| 7 | 간정필담 | 담헌설총           | 연휘             | ○  | 일본 동양문고<br>:Ⅶ-5-3                      |
| 8 | 간정필담 | 담헌설총           | 연휘             | ○  | 미국 버클리대학교 동아시아 도서관<br>:39.101          |

이본이 8종인 것으로 보아 가장 널리 알려진 이본임을 알 수 있다. 대다수의 『간정필담』은 홍대용의 『연행잡기(燕行雜記)』(『연기(燕記)』)와 한 세트 이루어져 있다.<sup>13)</sup> 또한, 이 세트가 『담헌연기』, 『담헌설총』, 『연휘(담헌연휘)』의 형태로 전승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간정동필담』은 전술하였듯이 1939년에 신조선사에서 활자로 간행된 『담헌서』에 수록되어 있다. 홍대용의 후손인 홍영선(洪榮善)이 자료 수집과 편집을 했고, 편찬과 출판은 신조선사에서 했다.<sup>14)</sup> 이본 연구가 시작된 지난 10년 전까지 대부분의 필담 연구는 『간정동필담』으로 이루어져 왔다. 뒤에 원증거의 발문 대신 『간정록후어(乾淨錄後語)』가 추가되어 있는데, 이는 전술한 『간정록』의 발문으로 추측된다. 『간정록후어』는 홍대용이

13) 『간정필담』만 남아 있는 이본들도 있는데, 현재는 필담만 남아 있지만, 이 역시 『연행잡기』와 한 세트였을 가능성이 크다. 그 대표적인 예가 한국은행본 『간정필담』과 종로도서관본 『연행잡기』이다. 洪大容 著, 夫馬進 譯注, 『乾淨筆譚 1 : 朝鮮燕行使の北京筆談錄』, 東京 : 平凡社, 2016, 3면.

14) 정인보, 『담헌서』, 『담헌서서』; 정인보, 『담헌서』附錄, 『湛軒洪德保墓表』附記; 장문석, 『식민지 출판과 양반 : 1930년대 신조선사의 고문헌 출판 활동과 전통 지식의 식민지 공공성』, 『민족문화사연구』 제55집, 민족문화사연구소, 2014, 372~377면.

1766년 10월에 반정균에게 보낸 『여반추루서(與潘秋廬書)』의 별지에 그 초기 형태가 보인다.<sup>15)</sup>

이를 바탕으로 홍대용 필담 기록의 이본을 크게 세 계열로 나눌 수 있다.

- (1) 『회우록』계 이본 : 『간정동회우록』, 『간정록』, 『철교화』, 『천애지기서』
- (2) 『연휘』 중 『간정필담』
- (3) 『담헌서』 중 『간정동필담』

(1) 『회우록』계 이본은 『간정동회우록』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이 확인되는 이본들이다. (2) 『연휘』 중 『간정필담』은 (1) 『회우록』계 이본에서 많은 수정이 이루어진 이본인데, 『연행잡기』와 세트가 되어 공개된 이본이었다는 특징이 있다. (3) 『담헌서』 중 『간정동필담』은 홍대용의 문집인 『담헌서』에 수록된 활자본 이본인데, 시기적으로는 가장 늦게 공개되고 공간되었으나 (1) 『회우록』계 이본의 뒤를 잇는 이본이다.

### III. 『연휘』 중 『간정필담』의 특징

#### 1. 공개를 목적으로 한 독립적 저술

선행연구에서 누차 지적하였듯이 『간정필담』과 『간정동필담』은 다른 부분이 많다. 두 이본 모두 “을유년(1765) 겨울에 나는 계부를 따라 북경에 갔다.[乙酉冬, 余隨季父赴燕]”라고 시작되지만, 바로 다음 구절부터 차이가 확인된다.

을유년 겨울에 나는 계부를 따라 북경에 갔다. 11월 27일에 압록강을 건너 12

15) 『담헌서』의 『항전적독』에도 이 편지가 수록되어 있지만, 별지가 없다. 『摺紳赤牘』 31~33면(하버드 대학교 도서관 소장본)에 별지가 수록되어 있는데 『간정록후어』 중 일부만 있다.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소장본 『乾淨後編』 제1권에도 별지가 수록되어 있다고 한다.(김명호, 『청조 문인과의 왕복 서신을 통해 본 홍대용의 사상 : 『乾淨後編』과 『乾淨附編』을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제14회 매산기념강좌 : 담헌 홍대용에 관한 새로운 탐색 발표문(2017.10.13.), 47면, 61면)

월 27일에 북경에 도착해서 조선 숙소에서 60여 일을 머물고 돌아왔다. 압록강을 건너 서쪽 지역에서 특출한 선비를 만나기를 바라서 찾고 문기를 몹시 부지런히 하였으나, 화북(華北) 지역 수천 리는 남쪽으로는 바다를 접하고 북쪽으로는 달자와 접해 있어 풍속이 우둔하고 문식(文識)이 높은 사람은 드물었다. 활쏘기와 말타기를 익히며, 하층민들은 작은 이익을 다투기만 하는 것이 북경 주변에 이르러 더 심하였다. 육경을 읽으나 과문(科文)을 위해서였고, 수재(秀才)로 일컬어지는 이들은 강남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많았다. 정도(正道)를 지켜 스스로 함양시키면서 남에게 인정받기를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도 있었겠지만 볼 수 있는 경로가 없었다.<sup>16)</sup>

『간정필담』의 서두인데, 『간정동필담』에 없는 내용은 크게 세 부분이다. 첫째, 연행 일정 전체를 개관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다. 압록강을 건너고 북경에 도착한 구체적인 날짜와 북경에서 머문 기간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 북경에서 만난 사람들은 대부분 과거 시험만을 위해 공부했고, 수재의 신분을 가진 이들은 중국의 강남 출신들이 많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홍대용이 만나기를 고대하던 특출한 선비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희망과 그를 찾기가 몹시 어려운 상황을 서술했다.

이 세 부분을 통해 홍대용이 『간정필담』에 독립성과 유기성을 부여하기 위해 노력했음을 알 수 있다. 연행 일정 전체를 개관하여, 항주 선비들과의 만남이 연행 일정의 막바지였다는 사실과 두 달 남짓한 북경 체류 기간의 절반을 그들과의 교유에 집중했음을 짐작하게 해준다. 이는 홍대용의 다른 연행 기록을 읽지 못한 독자들, 혹은 그의 중국 여행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간정필담』을 읽더라도 항주 선비들과의 교유가 홍대용의 연행 체

16) 홍대용, 『담헌연기』, 『간정필담』, “乙酉冬, 余隨季父赴燕, 以十一月二十七日渡鴨水, 十二月二十七日至北京, 留館凡六十餘日而歸. 渡江以西, 庶幾遇逸士奇人, 訪問甚勤, 而燕雲數千里, 南瀕海, 北界澗子, 風俗惟魯, 少文高者. 習弓馬, 下者競刀錐, 至直隸殆甚焉. 其讀六經, 爲時文, 以秀才稱, 類多自南來者. 若抱道自蘊, 不求人知者, 蓋有之而無自以見焉.”(본고에서는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인 『담헌연기』에 수록된 『간정필담』을 저본으로 삼았다. 이후 인용시에는 『간정필담』만 제시하겠다) 본고의 인용문 번역은 홍대용 저, 이상은 역, 『국역 담헌서』(한국고전번역원, 1974)와 洪大容 著, 夫馬進 譯注, 『乾淨筆譯: 朝鮮燕行使の北京筆談錄』 1~2(東京: 平凡社, 2016~2017)를 참고하여 수정·보완하였으며, 2015년 2학기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대학원 강의였던 한국고전자료강독(부제: 홍대용의 『간정동회우록』)에서 여러 학우들의 발표문에 도움을 받았다. 김명호 선생님과 학우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힘에서 어떤 비중을 차지했는지 단박에 파악할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북경에서 만난 문식을 갖춘 이들은 과거 시험에만 골몰했으며 큰 뜻을 품은 군자는 만나기 힘들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을 제시한 것은 항주 선비들과의 만남의 기쁨을 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포석이라 볼 수 있다. 게다가 마지막 부분은 문식을 갖춘 이들 중 상당수가 강남 출신 선비들이었는데, 그 중 홍대용의 간절한 소망을 이루어줄 훌륭한 선비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놓지 않으며 본론의 내용과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있다.

평중(平仲) 김재행(金在行)을 소개하는 구절 또한 『간정필담』이 공개를 위해 독립된 저작으로 수정된 것임을 알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김재행은 홍대용이 항주에서 온 세 선비와 만날 때마다 매번 동행하여 함께 필담을 나누는 사람이다. 『간정동필담』에서는 역관 이기성(李基成)과 홍대용이 항주 선비들의 숙소에 방문하기로 약속한 후, 김재행이 갑자기 등장하여 함께 가게 된다.<sup>17)</sup> 이에 반해 『간정필담』에는 해당 부분이 “내일 함께 가서 보기로 약속했다. 평중 김재행은 부사의 먼 친척 아우인데, 이야기를 듣고서 또한 기꺼이 함께하기로 했다.[明日約與共往見之。金在行平仲，副使族弟也。聞之，亦樂與偕焉]”라고 하여 부사(副使) 김선행(金善行)을 따라 온 김재행의 정보가 짧게 추가되어 있다. 이는 필담을 나누는 주요 인물 중 하나인 김재행을 독자들에게 소개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근거들을 통해 『간정필담』은 『간정동필담』보다 독립적 성격이 강한 저작물임을 알 수 있다.

## 2. 항주 선비들과의 왕복 서신 대폭 수록

『간정동필담』에는 없고 『간정필담』에는 있는 글과 서신(書信)들이 10편 확인된다.

|   | 날짜     | 발신인 | 수신인    | 형식 |
|---|--------|-----|--------|----|
| 1 | 2월 10일 | 반정균 | 이훤(李桓) | 서신 |
| 2 | 2월 10일 | 엄성  | 홍대용    | 서신 |

17) 홍대용, 『담헌서』 외집 권2, 『항전척독』, 『간정동필담』 (음력) 2월 1일, “乃約明日同往, 而金在行平仲聞之, 亦樂與之偕焉.”

|    |        |     |         |        |
|----|--------|-----|---------|--------|
| 3  | 2월 14일 | 엄성  | 홍대용     | 서신     |
| 4  | 2월 19일 | 홍대용 | 엄성      | 서신     |
| 5  | 2월 19일 | 홍대용 | 엄성      | 서신     |
| 6  | 2월 19일 | 엄성  | 홍대용     | 서신     |
| 7  | 2월 21일 | 홍대용 | 엄성, 반정균 | 서신     |
| 8  | 2월 21일 | 홍대용 | 엄성, 반정균 | 서신     |
| 9  | 2월 21일 | 엄성  | 홍대용     | 서신     |
| 10 | 2월 28일 | 홍대용 | 육비      | 기문(記文) |

『간정필담』에는 『간정동필담』보다 9편의 편지가 더 실려 있다. 표에 제시된 서간문들은 발신인과 수신인이 다양하다. 서간문의 길이는 대체로 짧은 편이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받은 편지나 선물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고, 며칠 동안 만나지 못한 아쉬움을 토로하거나 다음 만남을 기약하는 등, 그 당시 교류 상황을 좀 더 면밀하게 알 수 있는 편지가 대부분이다. 다시 말하자면, 학술 논쟁이나 새로운 문물 소개와 같은 정보 전달의 측면이 강한 편지들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애뜻한 감정이나 당시의 현장성이 느껴지는 편지들이 『간정필담』에만 수록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는 『간정필담』이 항주 세 선비들과의 교류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에 기인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북경에서 만난 중국인들과 한 달이라는 짧은 시간동안 우정이 깊어지는 과정을 설득력 있게 서술하기 위해서 주고받은 서신들을 최대한 반영한 것이다.

게다가 홍대용이 육비에게 써준 『충천묘화벽기(忠天廟畫壁記)』 전문이 실려 있는 점 또한 흥미롭다. 홍대용과 육비는 2월 23일에 처음 만나는데, 육비가 자신의 시인 『충천묘화벽시(忠天廟畫壁詩)』(혹은 『충천묘화벽가(忠天廟畫壁歌)』)가 자신의 증조부인 소미공(少微公) 육한(陸瀚)이 그린 벽화에 대한 시임을 이야기하며 이에 대한 글을 한 편 써주기를 부탁한다.<sup>18)</sup> 『간정동필담』에는 28일에 홍대용이 육비에게 보낸 편지 중에 『충천묘화벽기』를 보낸

18) 『간정필담』 2월 23일, “有<忠天廟畫壁歌>, 能各賜一篇, 則跪拜受之.”; “起潛指其詩稿中<忠天廟詩>曰: ‘忠天廟, 是里社中祀, 社神是隋唐時越國公汪華, 後殿畫壁, 是先曾祖手蹟. 乞諸公不拘詩文寵光, 當勒石不朽.’”; “起潛曰: ‘壁畫是諸天神佛, 今已模糊不復可辨. 先曾祖諱瀚字少微號雪韻道人, 值明季隱於畫, 壽亦不長, 別無見于時, 畫名至今在人口, 但贗本甚多. 拙詩中已具大略, 尊仰之意不敢當, 但見我輩相遇之情作原起, 及見拙詩有此題云云可矣.’”

것으로 짐작이 가는 언급은 있으나 해당 글은 실려 있지 않다.<sup>19)</sup> 홍대용의 문집이 편찬될 때 이 글이 기문으로 분류되어 『담헌서』 내집 권3에 동일한 제목으로 실렸기 때문일 것이다. 이 글에서 홍대용은 육비와의 우정뿐만 아니라 육한을 통해 명나라 유민의식을 표출하고 본인의 출세관을 피력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간정필담』은 북경에서 만난 세 선비와 주고받은 글들이 더 많이 수록되어 있다.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하는 『간정동필담』과 달리, 『간정필담』은 세 사람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집필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 3. 명나라 유민의식의 표출

『간정필담』과 『간정동필담』의 차이는, 전술한 대로 문장 혹은 문단 단위인 경우가 많지만, 그에 못지않게 글자 하나, 혹은 구 하나 정도의 길이에 서도 많이 확인된다.

이때 곁에서 보던 모든 사람이 낮빛이 바뀌지 않은 자가 없었다. 혹은 마음이 약하다고 하였고, 혹은 정이 지나치다 이르고, 혹은 강개한 마음이 있는 선비라고 하였고, 혹은 우리 의관을 보고 슬픔을 표현했다고 하니, 여러 말들이 통일되지 않았으나 요컨대 이 네 가지를 겸하여 그렇게 된 것이었다.<sup>20)</sup>(밑줄은 인용자 표시)

2월 4일에 항주 선비인 엄성과 반정균이 조선 사신들이 머무는 숙소에 찾아왔다. 홍대용의 숙소에서 필담을 나누던 도중에서 홍대용이 이별의 슬픔을 말하며, 애초에 만나지 말았어야 했다고 토로했다. 이에 반정균은 울고 엄성이 비통한 기색을 하자 그것을 지켜보던 숙소 사람들이 인용문과 같은 반응을 보인 것이다. 『간정동필담』에도 이 부분이 실려 있고 글자 출입이 있는데, 밑줄 친 부분은 『간정필담』에만 있다. 조선 사신들의 옷차림을 보고 망한 명나라를 떠올리며 슬퍼했다는 추측인데, 이는 연행록에서 명나라 유민의식을 표출시킬 때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이다.

19) 홍대용, 『담헌서』 외집 권3, 『향전척독』, 『간정동필담(숙)』 2월 28일, “二幅簡覽可悉也.”

20) 『간정필담』 2월 4일, “是時, 上下傍觀, 莫不動色. 或以爲心弱, 或以爲多情, 或以爲慷慨有心之士, 或以爲見我輩衣冠而發悲, 諸言不一, 而要之兼此四者而致然.”(밑줄은 인용자 표시)

사실 『간정동필답』이나 『을병연행록』에서도 명나라 유민의식의 표출은 쉽게 찾을 수 있다. 하지만 『간정필답』에서 이 부분이 부각되어 있는 것은 그 유통범위를 추적하는 데에 중요한 단서가 되므로 주목을 요한다. 선행 연구에서는 『간정필답』을 조선과 중국에 공개를 목적으로 편찬한 이본으로 파악했으며, 그 후 다른 연구들에서도 이러한 주장은 비판 없이 수용됐다. 귀국 후 반정군이 서신을 통해 자신의 필답에 대한 침삭을 부탁했고 홍대용이 이를 따랐다는 것을 그 근거로 제시하였다. 문자옥(文字獄)으로 문제가 될 만한 내용, 가령 반정군이 전겸익(錢謙益)을 목옹(牧翁)이라는 경칭(敬稱)으로 부른 것을 홍대용이 『간정필답』에서 삭제하였는데, 이를 그 예시로 들었다. 또한, 직접적인 근거는 아니지만 1779년에 중국인들에게 보낸 편지 두 통에 『간정필답』을 보낸다는 언급이 그 방계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sup>21)</sup>

먼저 1779년에 중국인에게 보낸 『간정필답』은 1772년에 개정된 『간정필답』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그 근거는 첫째, 선행 연구에서도 지적되었지만, 각각이 삼본(三本) 혹은 삼책(三冊), 다시 말해 총 3권의 책이라는 것이다.<sup>22)</sup> 둘째, 책의 마지막에 홍대용이 엄성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가 부기되어 있다고 했는데, 1772년에 개정된 『간정필답』 말미에는 원중거가 쓴 발문만 실려 있다.<sup>23)</sup>

그리고 제시된 인용문과 같이 명나라 유민의식의 표출 등 청나라에 유통되던 문제가 될 내용이 『간정필답』에서 확인된다. 이렇게 조선 사신의 옷차림 외에도 홍대용이 청나라 변발에 대해 비판하는 대목이나 명말 청초의 저명한 주자학자인 여유량(呂留良)과 선행연구에서 경칭을 지웠다고 지적한 전겸익에 대해 나눈 대화 등 문제가 될 내용이 텍스트 곳곳에 산재하여 있다.<sup>24)</sup> 그러므로 홍대용이 『간정필답』의 공개 범위를 조선으로 한정했다고 판단하는 것이 더욱 실상에 부합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21) 夫馬 進, 앞의 논문, 198~203면, 215~216면.

22) 홍대용, 『담헌서』 외집 1, 『항전척독』, 『答朱朗齋文藻書』, 『答孫蓉洲書』.

23) 홍대용, 『담헌서』 외집 1, 『항전척독』, 『답주낭재문조서』, “丙戌自京歸, 卽以七日筆話及往來簡札, 編次成書, 以天陞店在乾淨衞衙, 命之曰, 『乾淨筆談』, 伊時交會始末略具焉. 今刪其煩蕪, 寫作三冊, 尾附與鐵橋最後一書.”

24) 홍대용과 여유량에 대해서는 김명호, 『홍대용과 만촌 呂留良』, 『민족문화연구』 제77집,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17, 425~450면 참고.

#### IV. 『담헌서』 중 『간정동필담』의 특징

##### 1. 조선과 청나라의 다양한 문물 소개

『간정동필담』이 『간정필담』보다 훨씬 길다. 다시 말하자면, 『간정동필담』에는 『간정필담』에 없는 내용이 많다는 것인데, 그중 양적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조선과 청나라의 다양한 문물 소개이다. 『간정동필담』에는 양국의 다양한 문물과 제도들이 필담 소재나 배경으로 활용되고 있다. 서로의 옷차림과 상차림부터 시작해서 전약(牛皮煎), 청심환, 차, 술 등과 같은 음식과 약재에 대한 정보, 각 나라의 과거 제도와 풍습 등 그 대상과 범위가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하다. 게다가 조선의 군현 제도나 사행단의 상무역, 혹은 청나라의 우육 금지 등 외국인에게 발설하기 다소 조심스러운 정보들도 공유되고 있다. 그 중에서 상당한 분량을 차지하여 서술되고 있는 소재가 있는데, 바로 조선의 금주령이다.

『을병연행록』에는 중국을 여행하면서 조선의 금주령 때문에 대접받은 술을 사양하는 장면이 여러 차례 등장한다.<sup>25)</sup> 김재행은 조선의 금주령 때문에 청나라의 주점에 와서도 술을 마시지 못해 한탄하기도 한다.<sup>26)</sup> 『간정동필담』에서 조선의 금주령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은 2월 23일이다. 이날 김재행은 엄성에게 조선의 금주령을 이야기하면서 전날 자신에게 보내준 『양허당기(養虛堂記)』에 ‘주(酒)’자를 빼달라는 부탁을 한다. 이를 빌미로 향주의 세선비가 김재행을 놀리는데, 이 장면을 본 홍대용은 자신이 참석하지 못한 2월 16일 필담에서 김재행이 술을 마신 사실을 눈치챈다. 세 사람의 술 권유에 김재행은 홍대용의 눈치를 보게 되고, 이에 육비가 홍대용의 의중을 떠본다.

기잡이 말했다.

“연회에 술이 없으면 무엇으로 즐겁니까?”

내가 말했다.

“10여 년 동안 조선에서 연달아 흉년을 당해서 금주의 법령이 대단히 엄격하

25) 홍대용, 『을병연행록』 을유년 12월 1일; 병술년 1월 10일 등.

26) 홍대용, 『을병연행록』 병술년 1월 25일.

게 시행되는 중이나, 다만 이것은 결국 영원히 금할 물품은 아니므로 즐기는 사람이 또한 많이들 몰래 마시니 대개 그 죄가 사형까지는 이르지 않기 때문이었다. 연회에는 감히 공공연히 사용하지 못하니 이로 인하여 요즘 상황이 쓸쓸하여 낙세(樂世)의 풍미가 적습니다. 그러나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기잠이 말했다.

“근래에는 또한 풍년이었습니까?”

내가 말했다.

“근년에는 흉년이 심하지 않았지만, 술을 금한 것이 이미 오래라서 일단 옛것을 바꾸지 않았을 따름입니다.”<sup>27)</sup>

홍대용은 조선에서 10여 년 동안 흉년이 심해 금주령이 엄격하게 시행되어 공식적인 행사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실제로 엄벌을 내리는 것도 아니라서 몰래 마시는 경우가 많고, 최근에는 흉년이 아니라도 관습적으로 금주령이 유지되고 있다고 알려준다. 실제로 영조(英祖) 재임 기간에 금주 시행이 약 50회 있었는데 이는 조선왕조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진 것이며, 특히 영조 35년(1755)부터 강경한 금주 정책이 시행되어 10년 이상 지속되었다고 한다.<sup>28)</sup> 이 대화 이후에 홍대용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술을 마셨다. 특히 많이 마신 김재행은 인사불성이 되어 중국인들의 숙소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조선 사행단 숙소에서도 부사에게 꾸지람을 듣기까지 했다.

이와 같이 조선의 금주령과 관련된 언급들이 『간정동필담』에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 또한 외국인과 공유하기에 다소 부담스러운 정보일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홍대용 일행과 항주의 세 선비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평소에 궁금했던 것들을 거침없이 묻고 답했던 분위기가 형성되었을 것이며,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조선의 금주령과 관련된 대화도 가능했으리라 생각된다. 『간정동필담』에는 이러한 정보들이 많이 남아 있어서 당시

27) 홍대용, 『담헌서』 외집 권3, 『향전척독』, 『간정동필담(숙)』 2월 23일, “起潛曰: ‘燕會何以爲歡?’ 余曰: ‘十餘年間國內荐飢, 禁酒甚嚴, 但此終非永禁之物, 故嗜之者亦多潛飲, 盖以其罪不至於死也. 燕會則無敢公然用之, 以此時象蕭索, 少樂世風味, 然無可奈何矣.’ 起潛曰: ‘近來亦豐稔有年否?’ 余曰: ‘近年不甚尙歉而以禁之已久, 姑不變舊耳.’”

28) 박소영, 「조선시대 금주령의 법제화 과정과 시행양상」, 전북대 석사학위논문, 2010, 37~39면.

조선과 청나라의 문물에 대한 정보를 풍부하게 제공한다. 이는 또한 필담을 나누었던 사람들이 서로 간의 관계가 깊어지는 과정을 자연스럽게 서술하는 데에도 활용되고 있으며, 흥미로운 소재를 제공하여 『간정동필담』이 재미있는 독서물이 되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다.

## 2. 다채로운 등장인물과 진솔한 묘사

『간정동필담』에서 필담에 참여하는 주요 인물은 홍대용, 김재행, 반정균, 엄성, 육비이다. 여기에 삼사(三使)를 비롯하여 몇몇 사람들도 필담에 참여했다. 이는 삼사를 제외하면 오로지 다섯 명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간정필담』과 큰 차이가 나는 부분이다. 다섯 명 외에 필담에 직접 참여하는 사람은 조선인 역관(譯官) 김한경(金漢慶)과 장택겸(張宅謙), 그리고 중국인 한생(韓生)이 있다. 역관인 두 사람은 2월 4일에 조선 사신 숙소에서 엄성, 반정균과 만나게 되는데, 김한경은 구면인 엄성이 먼저 말을 걸어 인사를 했고, 장택겸은 양명학과 주자학에 관한 대화를 반정균과 짧게 주고받았다. 중국인 한생은 2월 23일 필담 자리에서 함께 술을 마시며 잠시 필담을 나누었다. 모두 짧게 등장하는 사람들이지만, 다양한 신분과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대화 중간에 적절히 끼어들어 필담 내용을 풍성하게 해주고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제공한다.

필담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필담의 소재가 된 만주인(滿洲人) 파씨(巴氏)도 있다. 그는 관직이 호부필첩식(戶部筆帖式)인 관원이었는데, 반정균의 계부(繼父)로 반정균을 따라 그의 숙소에 잠시 왔다. 홍대용이 계부가 무엇인지 묻자 엄성은 ‘배건(拜乾)’이라고 한다고 답한 후, 이를 설명하면서, “이 풍속은 극히 비루하니 가소롭습니다[此俗極鄙可笑].”라고 말했다.<sup>29)</sup> 이 내용이 『을병연행록』에도 실려 있는데, 계부라는 의미가 “의로 부자를 정함”이라는 부가 설명이 있고, 엄성이 반정균을 기롱하는 말에 대해

29) 필담의 맥락상 “拜乾”은 拜乾親을 줄여 표현한 것으로, 출세를 위해 권세가와 부자 관계를 맺는 풍속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청나라 시기에 출세를 위해 권세가 있는 사람과 관계를 맺는 방식으로는 拜乾親(부모-자식관계를 맺는 것), 拜門(사승관계를 맺는 것), 拜把子(형제관계를 맺는 것) 등이 있었으며, 그 중 拜乾親이 가장 긴밀한 관계였다고 한다.(白樂天主編, 中國中央文史研究館編, 『中國通史』 4, 北京: 光明日報出版社, 2002(第2版), 1800~1802면; 馬平安, 『晚清非典型政治研究-帝國的經驗和教訓』, 北京: 華文出版社, 2014, 44~48면 참고)

“대저 반생이 한인의 몸으로 만주 사람에게 부자의 의를 정함을 기롱함이 다.”라는 홍대용의 생각이 덧붙여져 있다.<sup>30)</sup>

과씨가 일어나 강 앞으로 와서 우리가 필담한 것을 들춰 보았다. 역암은 ‘계부 운운’ 한 것과 ‘만력의 동정 운운’이라고 쓴 대목은 감춰버려 보지 못하게 하였다. 과씨는 또 작별하고 갔다. 세 사람이 모두 문에서 그를 전송하고 돌아와 자리에 앉았다. 기잡이 역암이 말한 ‘이 풍속이 지극히 비루하다.’라고 한 것을 지워버리며 말했다.

“아마도 그 사람이 이것을 보았다면 마음을 가누기 어려웠을 것입니다.”<sup>31)</sup>

이 장면은 과씨에 대한 뒷말뿐 아니라 명나라 만력(萬曆) 연간의 임진왜란에 관한 대화를 하다가 들킬 뻔한 상황이었으므로 매우 아슬아슬한 장면이 아닐 수 없다. 엄성의 임기응변으로 겨우 위기를 모면했지만, 육비가 가장 문제가 되었을 대화 부분을 지워버리면서 일단락되었다. 이 역시 짧은 에피소드이지만, 항주 세 선비가 만주인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다.

이와 같이 『간정동필담』에서는 다양한 신분과 국적을 가진 등장인물들이 등장하여 자칫 단조로울 수 있는 필담 분위기를 환기해 대화의 완급을 조절하고 있다. 하지만 『간정동필담』에서 가장 다채롭고 진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등장인물들은 바로 홍대용과 김재행이다. 김재행은 홍대용 연행록 전체에서 개그를 담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특히 진솔한 금주령과 관련하여 많은 농담과 여러 번의 실수를 하면서 필담의 재미를 배가시키는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 홍대용 역시 『간정동필담』에서는 짓궂은 농담을 하고,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않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바로 물어보는 등 『간정동필담』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다양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30) 홍대용, 『을병연행록』 병술년 2월 26일. (임기중 편, 『연행록전집』 48, 동국대 출판부, 2001, 73~74면; 홍대용 저, 정훈식 역, 『을병연행록』 2, 도서출판 경진, 2012, 321면)

31) 홍대용, 『담헌서』 외집 권3, 『항전척독』, 『간정동필담(속)』 2월 26일, “巴姓起至炕前, 披見吾輩筆談. 力闢以繼父云云及萬曆東征云云所書者, 藏去不使之見. 巴又別去, 三人皆送之門, 還就坐. 起潛見力闢語此俗極鄙云云, 塗抹之曰: ‘恐其人見之, 難以為情.’”

### 3. 청나라에 대한 긍정적 평가

당대의 다른 연행 기록들을 살펴보면 예외 없이 존명배척(尊明排淸) 사상을 기저에 깔고 있다. 홍대용의 연행 기록들 또한 예외가 아닌데, 『간정동필담』에서는 존명 사상과 청나라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공존하고 있어 주목을 요한다.

내가 말했다.

“순은 동이의 사람이고, 문왕은 서이(西夷)의 사람이니, 왕후장상이 어찌 종자가 있겠습니까? 진실로 하늘의 때를 잘 받들어 백성들을 편안하게 한다면, 이는 천하의 의주(義主)입니다. 본조가 산해관에 입성한 이후에 이자성 무리를 평정하고, 이제 백여 년 동안 백성들이 안정되었으니, 그 통치가 훌륭하다고 하겠습니다.”<sup>32)</sup>

홍대용은 인용문에서 청나라 황제가 한족이 아니라도 천하를 다스리는 데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중국 역사 속에서 성군(聖君)으로 일컬어지는 군주들의 출신이 이민족이었음을 그 근거로 제시하였다. 물론 이 부분이 청나라가 명나라의 예악 문물을 버린 점을 비판하고 전대 왕조의 제도를 계승해야 한다는 주장의 서두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를 고려하더라도, 조선의 사대부가 청나라 황제가 만주족인 것이 문제가 없으며, 태평성대를 이룩한 황제임을 인정하는 것은 주목을 요하는 발언이라고 생각된다.

홍대용은 청나라가 조선과의 실제 외교 관계에서도 매우 관대한 태도를 보이는 것을 칭찬한다. 여기에 더하여 공물로 바치는 쌀의 경우, 명나라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은 양을 바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sup>33)</sup> 이와 같은 청나라의 관대한 외교 정책은 『간정동필담』과 『간정필담』 모두에서 소개되고 있는데, 아래 제시된 내용은 『간정동필담』에만 있다.

32) 홍대용, 『담헌서』 외집 권3, 『항전척독』, 『간정동필담(속)』 2월 26일, “余曰: ‘舜, 東夷之人也, 文王, 西夷之人也, 王侯將相, 寧有種乎. 苟可以奉天時而安斯民, 此天下之義主也. 本朝入關以後, 削平流賊, 到今百有餘年, 生民按堵, 其治道可謂盛矣.’”

33) 홍대용, 『담헌서』 외집 권2, 『항전척독』, 『간정동필담』 2월 12일, “余曰: ‘只以貢米言之, 前則一萬包, 年年蠲減, 今則數十餘包.’”

난공이 말했다.

“사신이 돌아갈 때 상사(賞賜)가 있습니까?”

내가 말했다.

“매우 후하니, 비단이 수백 필이고 은자(銀子) 수천 냥인데, 사행단의 식량이 나 가족의 건초에 드는 비용은 헤아릴 수 없습니다.”<sup>34)</sup>

앞에서 서술한 관대한 청나라의 또 다른 예시라고 볼 수 있다. 필담 혹은 필담집의 효율성을 위한다면 굳이 덧붙이지 않아도 될 내용이다. 하지만 홍대용은 청나라가 상사에 있어서도 아낌없이 베푼다는 것을 증언하여, 청나라에 대한 긍정적인 견해를 강조하였다. 또한, 공미뿐만 아니라 상사나 사행단의 일체 비용에서도 청나라가 매우 넉넉한 태도를 보인다는 정보를 최대한 많이 서술하고자 노력했다는 점은 『간정동필담』이라는 이본의 특징을 잘 드러내 주는 예시라고 생각된다.

## V. 결론

홍대용 필담 기록의 이본들을 분류하면 크게 세 계열로 나눌 수 있다. 그 중 계열(2)로 분류되는 『간정필담』은 8종의 이본이 현존하며 『연행잡기』와 세트를 이루어 유통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계열(3)인 『간정동필담』은 『담헌서』에 수록되어 있다. 『간정필담』과 『간정동필담』의 내용을 비교 분석한 결과, 그 차이를 중심으로 밝힌 각각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간정필담』은 조선 내의 유통을 염두에 둔 이본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저술된 단독 필담집이다. 이에 반해 『간정동필담』은 『간정필담』보다 분량이 더 많으며, 당시 필담 내용을 최대한 수록하고자 노력한 필담 소재의 보고라고 할 수 있다.

『간정필담』에는 필담 서두에서 사전 정보들을 제공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으며, 중국 문인들과의 왕복 서신을 대폭 추가하여 단시간에 깊은

34) 홍대용, 『담헌서』 외집 권2, 『항전척독』, 『간정동필담』 2월 12일, “蘭公曰: ‘使臣歸時, 亦有賞賜否?’ 余曰: ‘甚厚, 緞帛數百匹, 銀子數千兩, 餼廩草料經費不貲矣.’”

우정을 공유하게 되는 과정을 설득력 있게 그려내고 있다. 또한, 명나라 유민의식이 표출되는 대목들을 통해 홍대용이 그 유포 범위를 조선으로 한정된 저작임을 밝혔다. 『간정동필담』에는 조선과 청나라의 다양한 문물과 제도들이 소개되었다. 필담 장면에서 다양한 신분과 국적을 가진 등장인물들이 등장하고 있으며 그 진솔한 면모가 섬세하게 묘사되어 있다. 또한, 홍대용은 청나라의 치세와 조선과의 실제 외교 관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와 같이 흥미로운 소재가 무궁무진한 『간정동필담』은 필담 초기본인 『간정동회우록』이나 『간정록』에 더욱 근접한 이본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는 홍대용의 필담 기록의 세 계열 가운데 두 계열의 이본을 비교해 보았다. 본고의 결과를 바탕으로 본고에서 다루지 못한 『회우록』계 이본인 『간정록』, 『철교화』, 『천애지기서』와의 비교를 수행해야만 온전한 필담 이본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홍대용의 또 다른 한문 연행 기록인 『연행잡기』와 한글 연행록인 『을병연행록』 모두를 총체적으로 비교 분석하여 홍대용 연행의 전모를 파악하고, 궁극적으로 홍대용의 사상적 궤적을 추적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참고문헌

## 1. 자료

- 朴齊家, 『貞蕤閣文集』,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朴趾源, 『燕巖集』,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李德懋, 『靑莊館全書』,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搢紳赤牘』,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洪大容, 『湛軒書』, 『韓國文集叢刊』 248.  
 \_\_\_\_\_, 『湛軒燕記』,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홍대용, 『을병연행록』, 임기중 편, 『연행록전집』 48, 동국대 출판부, 2001.

## 2. 저서

- 정훈식, 『홍대용 연행록의 글쓰기와 중국 인식』, 세종출판사, 2008.  
 홍대용 저, 이상은 역, 『국역 담헌서』, 한국고전번역원, 1974.(한국고전종합DB)  
 \_\_\_\_\_ 저, 정훈식 역, 『을병연행록』 2, 도서출판 경진, 2012.  
 馬平安, 『晚清非典型政治研究-帝國的經驗和教訓』, 北京: 華文出版社, 2014.  
 白樂天主編, 中國中央文史研究館編, 『中國通史』 4, 北京: 光明日報出版社, 2002(第2版).  
 洪大容 著, 夫馬進 譯注, 『乾淨筆譚: 朝鮮燕行使의北京筆談錄』 1~2, 東京: 平凡社, 2016~2017.

## 3. 논문

- 邴健行, 「朝鮮洪大容《乾淨筆譚》爲杜撰本說獻疑」, 『北京化工大學學報(社會科學版)』, 北京化工大學, 2016(1), 60~67면.  
 김명호, 「홍대용과 만춘 呂留良」, 『민족문화연구』 제77집,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17, 425~450면.  
 \_\_\_\_\_, 「정조 문인과의 왕복 서신을 통해 본 홍대용의 사상: 『乾淨後編』과 『乾淨附編』을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제14회 매산기념강좌: 담헌 홍대용에 관한 새로운 탐색 발표문, 2017, 37~64면.  
 박소영, 「조선시대 금주령의 법제화 과정과 시행양상」, 전북대 석사학위논문, 2010.  
 夫馬進, 「홍대용의 『乾淨筆譚』과 그 改變」, 『漢文學報』 제26집, 우리한문학회, 2012, 193~263면.  
 안대회, 「洪大容 후손가 소장 李德懋 筆寫本 3종 연구」, 『고전문학연구』 제42집, 한국

고전문학회, 2012, 377~417면.

장경남, 『송실대 한국기독교박물관 소장 홍대용 연행 기록 연구』, 송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제14회 매산기념강좌 : 담헌 홍대용에 관한 새로운 탐색 발표문, 2017, 7~33면.

장문석, 『식민지 출판과 양반 : 1930년대 신조선사의 고문헌 출판 활동과 전통 지식의 식민지 공공성』, 『민족문화사연구』 제55집, 민족문화사연구소, 2014, 351~407면.

조창록, 『홍대용 연행록 중 西學 관련 내용의 改削 양상』, 『대동문화연구』 제84집,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3, 165~192면.

채송화, 『『을병연행록』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2013.

최 식, 『텍스트로 바라본 燕行과 燕行錄 : 燕行의 體驗과 享有』, 『대동문화연구』 제88집,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4, 445~493면.

\_\_\_\_\_, 『韓中 知識人 交流와 記錄 : 洪大容과 嚴誠을 중심으로』, 『洋矯語文研究』 제40집, 반교어문학회, 2015, 307~331면.

A Study on the Variant of Hong, Dae-yong(洪大容)'s  
*Ganjeongpildam*(乾淨筆譚)

Chae, Song-hwa

This article introduces the current status of Hong, Dae-yong's written conversation variants and divides it into three major groups. Which are 1. *Hoerok* (會友錄) group variants, 2 *Ganjeongpildam*(乾淨筆譚) in *Yeonbui*(燕彙), 3. *Ganjeongpildam*(乾淨筆譚) in *Dambeonsoo*(湛軒書). This article focused on different characteristics between groups 2 *Ganjeongpildam* in *Yeonbui* and 3. *Ganjeongpildam* in *Dambeonsoo*.

A total of eight variants are currently available for *Ganjeongpildam*. It seems to have been circulated as a set together with *Yeonhaengjapgi*(燕行雜記). *Ganjeongpildam* is a solitary written conversation written for the purpose of publicizing to the unspecified number of people in Chosun. It provides the necessary beforehand information in preface of the written conversation, and it adds a lot of ephemeral writings with Hangzhou(杭州) scholars so that the process of deepening friendship for a short period of time is convincingly drawn. In addition, it revealed that Hong, Dae Yong limited the range of his dissemination to Chosun through passages expressing Ming Dynasty ruined country's consciousness.

*Ganjeongdongpildam* has more contents than *Ganjeongpildam*, This book can be said to be a treasure trove of written conversation, which Hong, Dae-yong tried to record as many stories as possible. Various artifacts and institutions of Chosun and Qing Dynasty were introduced throughout the written conversation, and characters with various nationalities and identities are appearing and their true aspects are well portrayed. In addition, Hong, Dae Yong affirmed the reign of Qing Dynasty and appreciated the real diplomatic relations with Chosun. In this way, there is a lot of interesting material in *Ganjeongpildam*, and it can be said that *Ganjeongpildam* is closer to that of *Ganjeongdongboerok*(乾淨衙會友錄), *Ganjeongrok*(乾淨錄) which is early

variant of written conversation.

keywords: Hong, Dae-yong(洪大容), *Ganjeongpildam*(乾淨筆譚), *Ganjeongdongpildam*(乾淨衙筆談), Yeonhaeng(燕行), *Yeombui*(燕篋), *Dambeonseo*(湛軒書)

접수일자: 2018. 3. 31.

심사기간: 2018. 4. 1.~2018. 5. 10.

게재결정: 2018. 5. 10.

